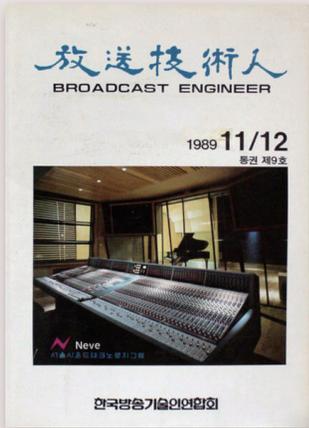


응답하라 '방송과기술' - 5



제9호 1989년 11월 출간

표지설명
영국 런던의 METROPOLIS STUDIO

연합회 제2의 출발을 전망한다



1989년 11월 7일, 연합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간담회 내용입니다.

치열했던 연합회 탄생 과정과 연합회의 위상에 대한 선배님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연합회의 존재가 너무나 당연하다보니 그 소중함과 존재에 대해서 당시보다 고민이 적은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의 치열했던 고민과 노력의 모습을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집자주-

터놓고 이야기합니다 - 연합회 제2의 출발을 전망한다



장 소 : 연합회 사무실

일 시 : 1989.11.7(화) 오후 6 : 30

참석자 : KBS 안덕상 문종환, MBC 조병락 박건철,
KEDI(EBIS) 조동춘 조병록

사 회 : 김종철

김종철: 정말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를 함께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너무 늦은 감이 드는 것은 그동안 서로 바빴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성의 부족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서로 긴밀한 연락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일 동: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 살아가는 것이 바쁜 탓이겠죠" 라고 웃으며)

김종철: 이렇게 모였으니, 지난 얘기부터 시작하는게 도리겠죠. 어떤 모임이나 단체를 결성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험에 가까운데 본 연합회의 산파적인 초대 집행부의 회장단에게 첫 발언권을 드립니다. 우리 연합회의 초창기 비화로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안덕상: 뭐, 거창하게 비화라고 이름 붙이기는 뭐 합니다만 사람 사는 곳엔 늘상 지난 이야기가 있는 법이지요. 방송기술인협회가 작게나마 처음에는 만들어진 이후 하나 된 단합된 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연합회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과거지사입니다만, 그 때에는 우리 자신들이 도저히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열의를 가진 사람들이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죠. 그런 일이 있게 된 동기는 KBS 대구·경북지역에서 근무하던 방송기술인들이 「우리의 주장」이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말로는 표현될 수 없는 관계로의 유형, 무형의 협박으로 남아프리카의 흑인해방시대 「자유의 절규」라는 영화의 주인공인 신문편집인 「우즈」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의 일에 매달렸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도 여의도는 첫 추위가 찾아 왔을 겁니다. 조 회장, 어때요 내 기억이 맞죠?



조병락 : 그랬죠, 그때 일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날씨보다 더 추웠던 것이 두려움에 대한 마음의 불안이었으니.

박건철 : KBS보다 늦은 MBC의 재단 사정으로 또 애는 얼마나 태웠습니까?

조병락 : 그랬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방송기술인이 연주소의 제작파트와 송신소의 송출파트로 나누어, 우릴 두렵게도 했고 그 두려움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여관방에서 함께 뒹굴며 고민하던 시절, 지금 생각하니 추억인데 그때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문종환 : 다들 심리적 부담이 컸지요. 실정법에 어긋난다는 반대논리를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 쪽에서는 세상말로 옷 벗을 각오들도 했는데요. 뭘? 그러나 세상의 시계바늘이 결국은 오늘이 있게 하는 것 아닙니까?

조병락 : KBS 협회설립의 도화선이 대구·경북지부의 방송기술인들에게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6.29 전후에 있었던 방민추(방송민주화 추진위원회)가 기폭제였던 것이 사실이죠. 그때는 단순히 방송에서의 노조설립을 위한 기초에 불과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자신들의 단체로서 기술인협회는 그 자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앞으로 그 위상에 대한 정립은 막중하리라고 봅니다.

조동순 : 우리가 맨 막내죠. 그러나 존재가치의 의미로는 KEDI(EBS)가 선두에 있을 겁니다. 지금에 와서는 참 잘한 일이고 보람도 느끼니다만, 우리들의 시작도 KBS, MBC 못지않게 어렵고 힘들었죠. 우리는 어느 협회보다 연합회 도움을 많이 받고 자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덕상 : 이때를 빌어, 그 당시의 발기인과 KBS의 준비위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실제로 목이 메인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방송기술인의 자리에 선 순간에 우리들이 지금하고 있는 이런 단체와 모임이 필요했던 겁니다.

김종철 : 저도 이런저런 모임에서 많은 사회를 보았습니다만, 다들 말씀들을 조리 있고 질서 있게 잘 해주시는군요. 순서 없이 이제부터는 주제를 정하지 말고 자유대화하로 진행하시죠? (일동 웃음) 그

렇습니다. 「방송기술인」을 처음부터 읽으셨던 독자들은 모두가 공감을 느끼실만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과거지사에 매달리실 필요는 없고, 각 사에서는 그 나름대로 이제는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또 활발히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의 모임인 협회의 위상정립을 위한 방안이라고 있습니까?

문종환 : 그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순서가 바를 것 같습니다. 먼저 협회의 위상정립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바탕 위에서 노동조합과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방송기술인협회는 계속적으로 회사와 방송기술인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이런 작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다양한 구성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일체감 조성에 주력하여 과도기적 진통을 슬기롭게 극복하여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방송을 경영함에 있어 일부 직종에 대한 특별한 우월성을 주장시켜왔습니다. 그때 기득권을 인정받았던 세력들이 부단히 수구반동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성원들이 이 점을 인정하려 듭니까? 현실의 괴리는 여기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은 이러한 특수하고 총체적인 현실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될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협회는 미래지향적인 자기논리를 확립하는데 주력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안덕상 : 무슨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합니까. 노동조합과 협회, 모두 현실을 직시하는 자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약간 달라야겠죠. 노조는 능동적인 참여행위가 있어야겠고 협회는 여론형성의 기틀, 다시 말해 논리의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조동순 : 두 분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노조와 협회는 여러 측면에서 추구하는 이상이 서로 상충하기보다는 협력관계, 즉 상호보완내지 상부상조의 관계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범치국가에서 법

률적 단체가 우선이나? 자생적 단체의 생명력이 우위나 하는 논쟁은 이 시점에서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합법화된 단체인 노조는 그 나름대로 힘의 논리로도 해결가능한 분야가 많겠지요. 그러나 협회도 나름대로의 비전이 확실한 것도 사실 아닙니까. 역할의 수행은 분명해야겠지만 궁극적인 방송의 민주화를 바라는 이상은 이 시점에서 동일한 것 아닐까요.

김종철 : 원칙론에는 이의가 없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실적 감각인데, 지난번 MBC의 민주방송쟁취를 위한 MBC 노동조합의 투쟁일지에서는 협회와의 이해관계가 노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땠습니까?

조병락 : 우리 내부의 사실이 외부에 그렇게 유포되었습니까. 이 문제는 시인도 거부도 하지 않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자체가 시행착오의 연속인 것과 같이 우리의 방송현장에서 노조가 생기고 협회가 있게 된 헛수가 방송년수에 비하여 경미한 것도 사실이지요. 그러다 보니 초기에 겪게 되는 일말의 시행착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박건철 : 문제가 심각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협회장으로서의 강요받는 자리가 여간 불편했던 것이 사실이었고, 지금 생각해도 협회는 나름대로의 방향타가 있어야 됩니다. 노조가 일방적인 투쟁을 결행하였을 때 그 의지의 진위를 파악하는 시대적 사명감을 강요하였을 뿐, 분명한 시대논리를 협회나 노조 모두가 간과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잘못은 겸허하게 수용하여야겠죠. 이제부터라도 말입니다.

김종철 :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를 거론해 보겠습니다. 실탄 없는 총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빠른 시간 내 연합회가 자립 되어야 하고 스스로 자기자리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데 어떻습니까? 연합회 자립, 자활을 위한 좋은 묘책이라도 있습니까?

안덕상 : 내 경험으로는 부단한 자기 성찰, 자기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온 업적이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회원들의 손에 의하여 재정자립이 이루어지고 회원들의 의사에 따라 의결되고 집행되어야겠지요.

조병록 : 연합회 회원의 공익사업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간단히 생각하면 우리들의 회자인 「방송기술인」의 유료구독화나 세미나 실시 등을 통하여 자질향상을 꾀하면서 수익사업의 연장으로 결부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요. 재정이 어렵고 우리들의 정치력이 아쉬기는 하지만 지금껏 견지해 온 우리들의 열정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되리라고 낙관이 되는데요.

박건철 : 이 자리에 전임 회장단도 계시고, 현재의 집행부도 함께 있으신데 말씀입니다만 사실 우리의 살림살이가 너무도 뻘뻘합니다. 자유경제국가에서 돈(재원)이 지닌 가치는 본질의 존재를 확인 받는 것에 비견될 수 있습니다. 3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재정자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홍보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만 부단히 노력해야겠습니다. 자립경제야말로 우리 연합회의 당면과제이니 말입니다.

조병락 : 어렵겠죠. 그러나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송을 위하고 방송기술을 위하자는 것인데 선후배가 협력해야겠지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확실한 중심점만 이룩되면 재정이야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실행되어야겠죠.

김종철 : 금년에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연합회 입장에서는 큰 행사랄 수밖에 없는데 「방송기술인상」의 제정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을 어떤 방법으로 시상하고 운영하여야겠는지 의논해 주시죠.

조동춘 : 첫해의 수상자로서 말하기가 쑥스럽습니다만, 수상자를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시상식장은 우리들의 잔치만으로 꾸미고 시



조병락



조병록



문종환

상금에 많은 비중을 둘 것이 아니라 수상자의 결정과정을 공정하고 모두가 수용할 수준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영광의 자리를 만들어, 선후배가 모처럼 함께 만나는 기쁨과 축하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는 것이 좋겠지요.

문종환 : 우리 기술인상의 제정취지는 방송문화창달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방송기술인들의 행적 및 업적을 매년마다 평가 포상함으로써 우리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고자 함과 부단한 기술개발과 자기계발 의식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입니다. 심사방법도 결코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연합회 내의 별도 기구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시상에 대한 권위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렇다고 갑자기 대통령상으로 격상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연합회의 위상에 연관시키는 것에는 조금 어색합니다만 지금의 시상제도가 나쁘다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 해 시행하다 보면 개선이 되겠지요.

조병락 : 이 문제도 시행착오를 거쳐야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상 기회가 적은 방송기술인에 대한 시상상의 수상혜택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박 회장, 이번에 조금 확대는 안 되는 것입니까?

박건철 : 그런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는 벌써 시상개요가 확정된 상태라 어쩔 수 없습니다. 차기 집행부에 위임하겠습니다.

조병록 : 솔직히 말씀하시죠, 재정이 모자라 확대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일동 웃음)

김종철 : 좋은 자리를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마지막으로 주제를 토론한 후 오늘 이 모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방송사의 입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혼재된 다른 협회와의 위상정립 또는 관계개선은 어떠하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병락 : 타 협회와의 상호협력에 앞서 우리는 우리 나름의 내실을 다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작은 예에 불과합니다만, 지난번 13대 총선에 앞서 제주문화 방송에서 리허설 도중 ON AIR 된 사건이 정치문제로까지 비화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앞장서서 대국민 홍보를 작성하고 중앙일간지 하단 광고를 게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은 크게 저질러 놓았는데, 엄청난 광고비를 우리 협회 혼자서 감당하기가 여간 어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 내 자신부터 타 협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이후 모금함을 설치하였는데 정말이지 놀랐습니다. 광고비를 상회하는 수준의 모금액수가 답지했습니다. 결과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방송의 현장에서 흥, 허물없이 만나는 이웃이고 동료이며 타 협회원도 언

제나 선의의 경쟁자가 아닙니까? 방송을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따질 것은 당당히 따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겠죠.

문종환 : 조 회장님의 협력과 경쟁의 동시하는 논리에 동감을 표합니다. 사실 우리가 협회를 만들고 단체의 힘을 키우자고 한 것은 개인 대 개인의 만남에서 해결되지 않는 많은 이해관계를 전체의 힘으로 해결해 보자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 협회원들은 방송기술인협회를 통하여 자신의 방송기술에 대한 직업관을 확립하여야겠고 그 믿음위에서 전체의 조화를 이루어야겠지요. 우리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만큼 우리의 방송현장에서 존경하는 풍토를 우리가 몸소 실천하려 해야 될 것입니다.

안덕상 : 결론적인 이야기기 되질 모릅니다만, 노동조합 내에는 운영위원이라는 기구가 직종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협회장들도 협회별 이해관계로 조정할 수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나 결론이 마치 노동조합의 등식과 같아야 한다는 데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제기한 노동조합과 협회의 역할분담이 분명하듯이 협회 대 협회의 이해관계는 논리와 조정을 통하여 극복해야겠지요.

조병록 : 이질적 집단이 동질의 일을 추구한다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겠지요. 우리 방송의 현상이 그렇습니다. 각자의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할 때 우리의 방송은 제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방송을 위해서는 분명히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작은 우월의식, 새로운 패권주의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거부해야 될 것입니다. 상호 긴밀한 유대관계는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이상입니다만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내려는 지혜가 필요하겠지요.

김종철 :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방송을 하나의 도구로 치부하려는 사회적 시각이 엄존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눈길뿐만 아니라 우리 방송의 내부에서도 자신의 출세를 위한 발판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집단 우월주의, 패권주의가 있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합회, 각 사우 협회가 그렇지 않다고 단정 내리는 것도 금물입니다만, 우리의 방송기술인이 먼 훗날에도 진정으로 방송을 사랑하고 지켰던 이들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이신 연합회의 중추가 되는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오늘 이 뜻깊은 모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